

해외출장
보고서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일본의 고도(古都) 보존·활용 관련 기관방문 및 인터뷰

2024.4.22 - 4.27.

일본 나라현 아스카촌 ·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심경미 연구위원, 김종범 연구원

(a u r i) 건축공간연구원

차 례

1. 출장 개요 및 세부 일정
2. 관련기관 방문 및 면담조사
3. 사례지 조사
4. 출장 효과 및 시사점
5. 구득 자료

1. 출장 개요 및 세부 일정

(1) 출장 개요

■ 과제명 :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 과제 발주처 : 부여군

■ 출장 대상지 : 일본 나라현 아스카촌,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 기 간 : 2024년 4월 22일(월) - 4월 27일(토), 5박 6일

■ 목 적 : 일본의 고도 보존·활용 관련 기관방문 및 인터뷰

- 아스카촌의 문화유산 관리·정비 및 활용사업, 지역주민지원 정책과 특성 파악
- 가나자와시 역사문화환경 경관관리 및 역사유산 활용 정책과 사례, 특성 파악

(2) 세부 일정

지역 구분		일자	현지시간	일정
세종·인천	오카사	4월 22일(월)	05:00 16:00	연구원 출발, 인천공항 출국, 아스카촌 도착
오사카	아스카		16:00 19:00	[현장조사] 국영 아스카 역사공원, 다카마츠즈카 벽화관
아스카		4월 23일(화)	09:00 16:00	[현장조사] 국립문화재기구 나라문화재연구소 아스카 자료관, 아스카촌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아스카	교토		16:00 18:00	[회의] 아스카촌 역장 종합정책과
교토			18:00 22:00	[회의] 아스카 출발, 교토 도착(경유지)
교토	가나자와	4월 24일(수)	08:00 10:00	교토 출발, 가나자와 도착
가나자와			10:00 16:00	[현장조사] ‘가나자와시 나무의 문화 도시 추진계획’ 시범지구, 가나자와성
			16:00 18:00	[회의] 가나자와시청 역사도시추진과
가나자와		4월 25일(목)	09:00 18:00	[현장조사] 히가시차야·니시차야(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고마치나미 보존지역), 켄로쿠엔, 경관정비사업 대상지, 가나자와 박물관
		4월 26일(금)	10:00 16:00	[회의] 가나자와시청 도시계획과 [회의] 가나자와시청 문화재보호과
			16:00 18:00	[현장조사] 나가마치(전통거리구역)
가나자와·교토 오사카	인천·세종	4월 27일(토)	09:00 16:00	가나자와 출발, 교토 경유, 오사카 도착
			18:25 20:15	오사카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연구원 복귀

2. 관계기관 방문 및 인터뷰

(1) 아스카촌 종합정책과 정책담당자 면담

- (일시) 2024.4.23.(화), 16:00-18:00
- (장소) 아스카촌 역장
- (참석자)
 - 원외 : 아스카무라 야쿠바 종합정책과 과장 키지 노리타카, 과장보좌 키타무라 아키라, 종합정책과 건축실장 후지우라 카쓰타카, 니시테츠건설 맹주찬(통역)
 - 원내 : 심경미 연구위원, 김종범 연구원
- (주요 안건)
 - 「아스카촌의 역사적 풍토 보존 및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明日香村特別措置法)」에 근거하여 2020년 4월 6일에 수립된 「제5차 아스카무라 정비계획(第5次明日香村整備計画), 2020~2029」의 주요 추진방향과 내용
 -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행위규제 관련 특이점
 - 아스카촌 · 부여 고도 협력사업 구상 등에 관한 논의

「아스카촌의 역사적 풍토 보존 및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그 배경

- 「아스카촌의 역사적 풍토 보존 및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아스카법)」은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향의 예전모습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자"는 마음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제정
- 「아스카법」의 보호 대상은 궁·절사 자체에 집중함. 그러나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인정하여 가시적 대상물보다 넓게 설정
- 「아스카법」의 적용 공간 범위는 매장문화재, 경관, 촌에 남은 도로망 등을 포함하여 아스카 전역으로 확대(지면 위는 아스카법에 의해서, 지면 아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영향)
- 「아스카법」은 「고도보존법」 제정 후, 약 14년 뒤에 제정된 법임. 아스카촌 전체가 「고도보존법」에 의해 '역사적 풍토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짐. 이에 「고도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고도보존법)」

특례를 통해 별도 법인 「아스카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특례 조치가 촌에 작동됨

[일본 「고도보존법」과 「아스카법」의 관계]

<p style="text-align: center;">고도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41년 법률 제1호)</p> <p>(특별 보존 지구의 특례)</p> <p>제7조의2 고도(古都)로 지정된 시·읍·면·동 중 해당 시·읍·동의 역사적 풍토가 그 구역 전체에 걸쳐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그 구역 전체를 제6조 제1항의 특별보존지구로 해당하는 지구로 도시계획으로 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시·읍·면·동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시계획으로 정한 지구에 대한 이 법의 규정(제4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지구는 제6조제1항의 특별보존지구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아스카촌의 역사적 풍토 보존 및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쇼와 55년 법률 제60호)</p> <p>(목적)</p> <p>제1조 이 법은 아스카 지방의 유적 등의 역사문화유산이 그 주변 환경과 일체화되어 일본의 율령국가 체제가 최초로 형성된 시대의 정치 및 문화의 중심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역사적 풍토가 아스카촌 전역에 걸쳐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그 역사적 풍토의 보존을 위해 주민의 이해와 협력으로 이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그 역사적 풍토의 보존이 국민들의 일본 역사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하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 고도(古都)의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쇼와 41년 법률 제1호)의 특례 및 국가 등이 취해야 할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

출처: <https://elaws.e-gov.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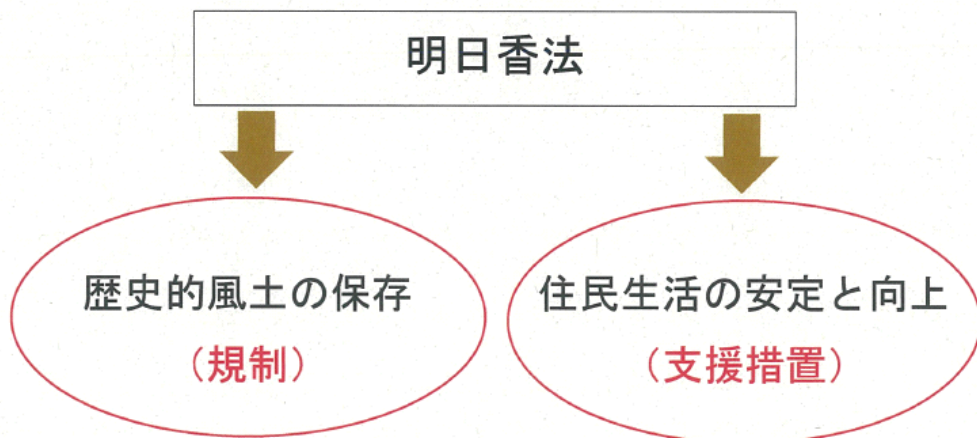
「고도보존법」에서 「아스카법」으로의 법·제도 전환 과정

출처: 奈良県 明日香村(2021), 明日香法 ―「日本のこころのふるさと」を守り活かす法―, 明日香法制定40周年記念誌, pp.16-17

- 일본의 고도 지정은 교토부 교토시, 나라현 나라시,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를 우선 지정하였고, 그 후에 시가현 오쓰시, 가나가와현 즈스시 · 나라현 텐리시 · 가시와라시 · 사쿠라이시 · 이카루가초 · 아스카촌을 추가. 현재 총 10개의 고도가 지정되어 관리 중

「아스카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

- 「고도보존법」에는 주민지원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없음. 주민 지원을 위한 타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 이 부분이 한국의 유사 법률과의 차이점
- 아스카를 제외한 타 지역은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 아스카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고 고유의 기금(교부금)을 통해 사업 추진
- 「아스카법」은 「고도보존법」에서 부족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지원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아스카법」에서의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 다이어그램

출처: 奈良県 明日香村(2024), 아스카촌 제공 자료

- 국가에서 아스카촌 지원을 위해 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움. 이를 위해 ‘아스카촌의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의 정비 등에 관한 계획(이하 아스카촌 정비계획)’이 수립됨. 아스카촌 정비계획은 국토교통성이 기본 방침을 정하고 나라현에서 수립
- 아스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받는 비율이 높게 책정. 아스카 경관(역사적 풍토 등)을 지키기 위해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아스카무라 정비 기금’이 1980년부터 운영. 문화재와 이로 인한 경관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는 수단
- 조성비는 국비:현비:촌비=24:6:1. 「아스카법」에서 국가는 24억엔을 출연하도록 함
- 1차에서는 130억엔, 2차에서는 200억엔, 3차에서는 300억엔을 예산 총액으로 설정. 이 중 1차에서는 62%, 2차에서는 95%, 3차부터는 60% 수준으로 집행

- 기금 형성 초기에는 경관 지키기에 초점이 맞았는데, 기금 조성 20년 후 최근에는 활용 목적의 사업에도 집행을 위해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교부금으로는 지붕과 외벽의 수선, 빈집 활용, 전신주 무전주화 사업 등을 추진
- 빈집을 활용하는 지원사업의 사례는 빈집을 숙소로 개조하고 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 중. 소유는 민간 소유이며, 운영 중 소유권이 이전이 1회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도 다시 건축물 개편을 지원
- 공공건축을 활용한 지원사업 사례는 아스카무와 만엽문화관이 있음. 아스카무는 지역에 식당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주민회관을 개수하여 음식점을 만드는 사업임. 식당 운영은 주민이 함. 만엽문화관의 경우, 해당 부지에서 발견된 유구 노출 전시와 실내 전시를 결합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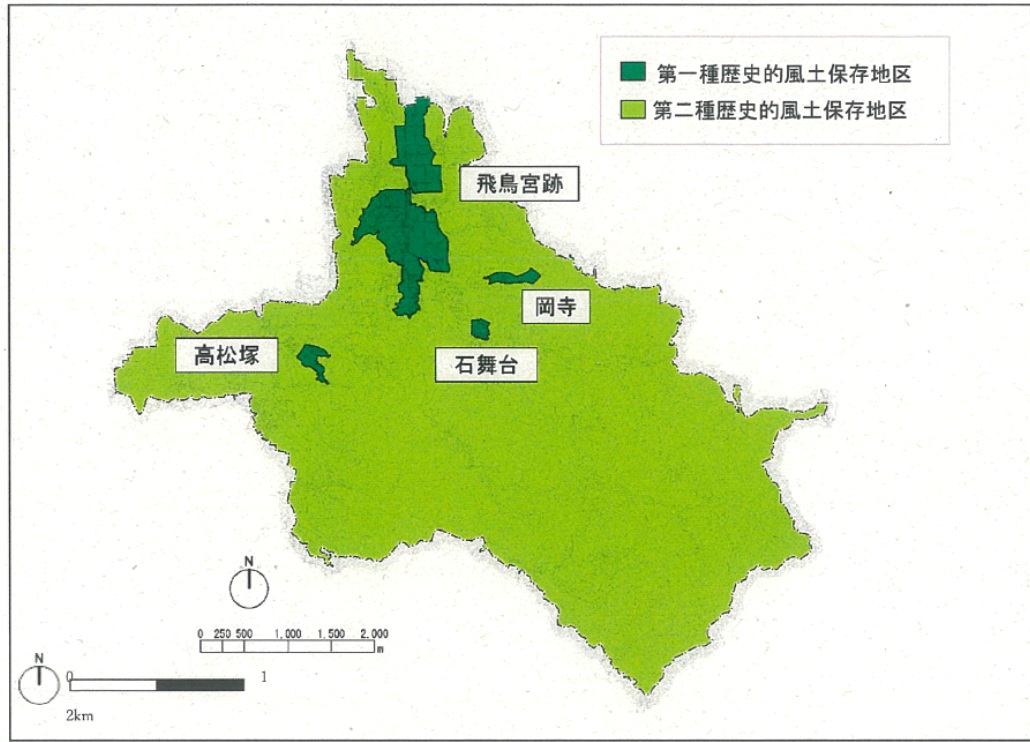


아스카촌 정비계획 제1차~제5차 주요 성과

출처: 奈良県 明日香村(2024), 아스카촌 제공 자료

- 「아스카법」에 의해 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시, 나라현에서 토지를 사주는 제도가 있음. 금전적으로는 국가에서 나라현을 지원하는 구조임. 그 면적은 아스카 전역의 3%에 해당
- 발굴조사로 인하여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그간 1건에 그침. 현재까지 건축물이 위치한 장소에 대한 발굴계획은 없는데,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발굴조사가 있을 수도 있음(현재 공원화된 지역은 1950~60년대에 이미 조성된 것)
- 아스카촌은 전쟁 피해가 없던 지역으로, 기존 궁터와 사역의 훼손이 없음.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허물어 발굴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낮음

「아스카법」에 의한 행위규제



「아스카법」에 의한 제1종역사적풍토보존지구(진녹색)과 제2종역사적풍토보존지구(연녹색)

출처: 奈良県 明日香村(2024), 아스카촌 제공 자료

- 「고도보존법」과 달리, 「아스카법」에만 제1종(진녹색)과 제2종(연녹색)의 보존지구가 설정. 제1종 지구는 신축 등 개발 행위가 불가하고, 제2종 지구는 어느 정도 개발을 개방하되 건축 높이와 절토 제한을 두고 있음
 - 제1종 : 현상변경의 엄격한(厳に) 억제, 그 상태로의 역사적 풍토를 유지 보존
 - 제2종 : 현상변경의 현저한(著しい) 억제, 역사적 풍토의 유지 보존을 도모
 - 허가를 요하는 행위의 종류 : 건축물·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색채 변경, 택지 조성, 토지 개간 및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목죽(木竹) 벌채 및 토석류 채취, 옥외 광고물의 표시 또는 게시
- 다만, 해당 법에 의해서 현상변경을 관리하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경관 조례와 함께 제도를 운영

아스카촌-부여군 고도 협력사업 구상

- 7월 중에 부여군에서 아스카무라-부여군 세미나를 계획 중
- 세미나는 양 지자체의 정책 담당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워크숍 형식으로 구상 중

- 건축공간연구원은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용역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세미나(워크숍)에 참석할 예정
-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공문으로 전달 예정임

기타

- '일본 역사문화 기본구상'과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은 아스카촌 문화재과에서 수립
- 현재 예산은 국토교통성에서 「고도보존법」으로 지원을 받고, 문화청에서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조사 등 예산을 받고 있음. 현재 상황은 과도기적 상황으로 판단
- 아스카촌이 수립한 '아스카무라 종합계획'은 도시계획·역사·의료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수립한 계획임
- 역사 풍토를 지키기 위한 H/W사업은 아스카촌과 나라현이 함께 추진(촌은 자치행정에 제한이 있어 현과 협조하여 정책을 추진)



[아스카촌 아쿠바 종합정책과 방문 사진]

(2) 가나자와시 역사도시추진과 정책담당자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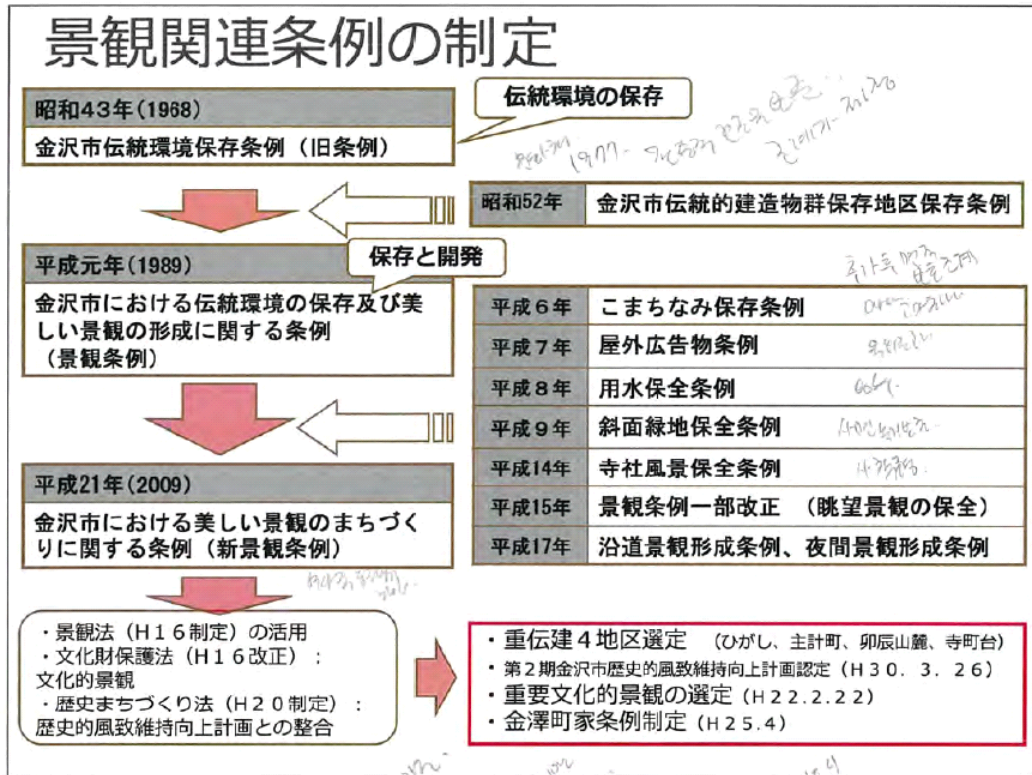
- (일시) 2024.4.24.(수), 16:00-18:00
- (장소) 가나자와시청 문화스포츠국 회의실
- (참석자)
 - 원외 : 가나자와시 역사도시추진과 요시다히로아키 담당과장, 마쓰무라마사마츠 주사, 니시테츠건설 맹주찬(통역)
 - 원내 : 심경미 연구위원, 김종범 연구원
- (주요 안건)
 -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金沢市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에 따른 중점구역의 설정 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 사업추진 담당주체의 역할과 관계
 - 역사도시 가나자와 마을만들기,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 제1기 주안점과 사업성과, 제2기 사업의 목표와 진행 현황

가나자와시 역사도시 일반사항

- 가나자와는 2개의 도시 축으로 개발과 보존을 추진. 가나자와역을 중심으로 해안으로 향하는 대각선 축은 개발을 중심으로, 가나자와성과 고마치나미 등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는 구도심으로 연결되는 축으로 구분
- 1964년에 무사 거리가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개발에 대한 신설 사업제도가 창설
- 1968년에 가나자와시 단독 조례로써, 문화재 부분을 제외하고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일본 최초로 제정(「가나자와시 전통환경 보존조례」)
- 기존 문화재 관계 법률은 도시 내 녹지와 자연경관 보존이 중심이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가와 거리가 대상에 포함
- 1977년에는 가나자와 전통적 건조물 보존 지구 보존 조례가 제정. 이후 면단위 보호를 위해 고마치나미 보존 조례, 옥외광고물 조례, 용수 보존 조례 등이 제정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金沢市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 수립 관련 사항

- 2008년, 「지역의 역사적 풍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역사마을만들기법)」이 제정되면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이라는 종합계획을 시정촌 단위에서 수립



가나자와 경관 관련 조례 제정의 흐름

출처: 가나자와시 역사도시추진과(2024), 제공 자료

- 역사적 풍치라는 것은 건조물과 사람의 생활을 일체적으로 보는 입체적 환경에 관한 계획임. 가나자와시에서는 11개의 풍치구역을 정함. 국가사적 구역, 찻집 거리 구역 등으로 구분
- 가나자와시는 각 기수별로 계획기간을 총 10년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국토교통성)로부터 계획을 승인 받음. 본 계획은 국토교통성이 주요 부처이며, 문화청은 국가지정문화재 관계 사업만 진행. 그 외 문화재는 국토교통성에서 관리
- 제1기 계획은 2008년 11월에 국가에 승인(인정) 신청을 하고, 2009년 1월 인정하여 계획이 수립. 이때에 국토교통성은 계획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자체에서 각자 수립하여 인정받는 순서로 진행
- 가나자와는 2023년 3월에 수립한 제2기 계획은 제1기 계획의 연속임. 신규사업 일부 추가되었으며 아래와 같음(현재 2기 6년차 사업 진행 중)
 - 역사적 건조물 보존 수리 어드바이저 제도
 - 강줄기 경관 보전사업
 - 니시찻집거리 녹지 정비사업
 - 조망경관형성사업
 - 나무의 문화도시 · 가나자와창출모델사업

- 건축문화발언사업
- 공공 쉼어 사이클 운영사업
- 카가하쿠만호쿠 회유루트 매력향상사업
- 어린이 예술문화 체험 페스타 개최 사업
- 해당 계획에 대해 문화청은 지자체에 부여하는 별도 예산이 없음. 다만, 계획에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등 정비 내용이 있을 경우 계획에 반영(문화청의 도시공원 성벽 복원, 마을 거리의 역사적 건조물의 매입 등도 포함)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 특히 전통적 건조물도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부분에만 국가 예산이 투여(예를 들어 가나자와 성에 대한 보수는 국가사적이므로 문화청 예산으로 진행하지만, 그 옆에 공원은 국토교통성 예산으로 정비)

■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 유관 부서 역할

-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 시, 각 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역사도시추진과는 마을의 거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당(총괄 부서)
 - 도시계획과는 건축물 높이와 용도, 신축에 대한 관리 담당
 - 경관정책과는 경관의장에 관한 사항 담당
 - 문화재보호과는 문화재 보호와 단일 건조물에 대한 관리 진행
- 가나자와성 등 사적은 이시카와현에서 관리하며, 성 주변의 해자는 가나자와시 문화재보호과에서 관리, 고마치나미 등 면단위 관계는 역사도시추진과가 관리

■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 향후 과제와 방향

- 제2기 계획을 세우며, 현황·문제점·과제를 도출
 - 역사적 건물 관련 : 마치야 지원사업과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으로 역사적 건축물 멸실은 감소함. 그러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소유자 부담은 여전히 큼
 - 역사적인 거리 풍경 관련 : 경관저해 요소인 전선, 암거화된 수로
 - 역사적 건축물 주변 환경 : 고층 건축으로 높이 부조화 발생, 옥외광고물·녹지 보전·일반 건축물의 외관 문제, 좁은 골목길의 자동차 유입, 노외주차장 증가
 - 전통행사, 전통문화 및 공예기술 관련 : 무형의 역사유산인 전통행사, 전통문화, 공예기술의 후계자 부족과 보존의식 저하
- 이에 따라, 가나자와시는 역사적 건축물의 적극적 보존과 활용, 도시 경관 보존, 주변 환경 보존, 무형유산 계승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金沢市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 성과와 관리

- 사업의 추진은 PDCA(PLAN, DO, CHECH, ACT)라는 사이클을 통해 국토교통성의 관리를 받고 있음. PDCA는 국토교통성의 전략적 공정 관리 체계로, 풍치유지향상계획에만 반영되는 관리체계는 아님
- 가나자와시에서는 1년마다 체크리스트를 관리(진척평가) 시행
- 5년째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연도에는 최종평가를 시행
- 성과평가는 자체평가이며, 사업의 질 평가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도 병행(2기 계획에서 반영한 내용임)
- 성과평가 자료는 시청 웹사이트에 공개함



[가나자와시 역사적풍치유지향상계획의사업개요 및 각 부서별 담당 공간 다이어그램]

출처: 가나자와시 역사도시추진과(2024), 제공 자료



[가나자와시 역사도시추진과 방문 사진]

(3)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 정책담당자 면담

- (일시) 2024.4.26.(금). 10:00-12:00
- (장소) 가나자와시청 문화스포츠국 회의실
- (참석자)
 - 원외 :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 아오야마마사유키 담당과장, 오오타준야 계장, 니시테츠건설 맹주찬(통역)
 - 원내 : 심경미 연구위원, 김종범 연구원
- (주요 안건)
 - 가나자와성 부지 등에 설정된 ‘문화환경존’ 설정, 가나자와21세기 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군’ 조성 사례 등역사·문화 진흥을 위한 도시계획 전략
 - ‘나무의 문화도시·가나자와’ 등 역사도시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가나자와 역사도시 관리 방안

- 가나자와는 재개발축 설정과 구획정비사업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



[가나자와 개발유도축(왼쪽 하얀색선)과 구획정비사업 지역(오른쪽 파란색면)]

출처: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2024), 제공 자료

- 가나자와역을 기준으로 바다를 향한 부분에는 구획정리사업 및 재개발 등 도시개발을 추진 중이며, 구시가지의 경우 역사도시로서 보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

【片町・香林坊・広坂エリア】



[가나자와시 도심축 창조사업과 중심시가지 거리조성사업 지역]

출처: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2015), 金沢市中心市街地都市機能向上計画 概要版, p.4

- 가나자와는 무사시지역, 고린보·히로사카 지역 등 가나자와성을 중심으로 동서에 위치한 중심시가지의 상업·업무·주거·관광·교통 접근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가나자와시 중심시가지 도시기능 향상 계획’을 운영 중
- 가나자와성 남측에 위치한 21세기 뮤지엄은 히로사카존으로 분류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심시가지 거리조성 사업을 진행. 이곳의 마을만들기 규칙에 대한 재검토와 도로변 건축물과 토지이용의 개선을 위한 사업 도입을 검토
- 가나자와성 남측부터 고린보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가타마치 도심축 또한 별도로 구성. 지역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민간 노후 건물의 재정비를 위한 초기 활동을 지원
- 이에 대한 시책 중 하나로 가나자와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매력 창출을 위해, 도시 구조를 보존하고 활용하며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도시계획 단 위에서 이뤄짐

「나무의 문화도시·가나자와」 정책 추진 배경

- 가나자와 지역은 기원전 300년 전부터 나무와 관련된 유적이 나오는 등 나무를 활용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
- 과거에 지어진 목조건축물이 현재도 도시 곳곳에 남아있으나, 그러나 나무를 사용하는 비율이 감소
- 가나자와는 시 면적의 60%가 산지에 이르는 등 목재가 주요 산업의 한 축을 담당
- 국가적으로도 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숲을 보존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음. 나무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그것을 활용해야 새로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사이클이 있음.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과거에 목조 사용에 엄격했던 기준을 완화하여 목재 사용을 장려
- 이런 전국적 배경 속에서 가나자와시는 나무 문화를 활용하고 계승하자는 움직임에 의해, 「나무의 문화 도시」 정책을 시작(전국적으로 목재를 활용하자는 부분은 많지만, 가나자와시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선진적 정책을 펴는 도시는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음)

「나무의 문화도시·가나자와」 정책 추진 의의

- 나무문화는 역사도시 가나자와를 만들어온 토대이자 중요한 관점임
- 창조도시를 목표로 전통공예와 관계 문화생업을 연결지어, 나무 문화를 계승 창조한 도시가 가나자와임
- 특히, 「경관도시 만들기」는 가나자와의 도시 미관을 지킨 핵심 정책임
- 이런 배경 위에 나무문화의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는 것이 추진 방향임
- 나무의 문화도시 활동은 사람들이 생활과 생업 속에서 엮어온 역사와 문화를 심화시키고, 풍부한 자연환경과 함께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종합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나자와의 도시만들기의 새로운 테마로 설정

木の文化都市・金沢—景観まちづくり+木の文化

金沢のまちづくりに“木”の視点をプラス
“もり”と“まち”をつなぎ、持続可能で魅力あるまちづくりへ



[나무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의의 :
경관 마을 조성, 역사도시, 창조도시를
기반의 정책]

출처: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2024), 제공 자료

- 정책 추진을 위해 ‘나무의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2017년 3월 수립.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10년을 보고 있음. 계획의 기본방침으로 기본이념은 “나무문화도시의 계승과 창출의 추진은 가나자와시에서 축적된 나무문화의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함과 동시에 선조들이 쌓아온 나무문화도시를 계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계승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로 정함
- 계획의 중요 개념으로 “계승”은 나무 문화의 의의를 인식하고 존중하여 나무 문화 도시를 계승하고, “창조”는 이를 다듬고 발전시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간다는 뜻
- 기본 개념을 공간 범위에 반영하여 기존 나무문화가 있는 곳을 계승의 공간으로 설정. 여기에는 ‘마을만들기 영역’ 중 추진 중점 지역과 문화계승 구역을 설정하고, 나무문화와 직접 관련 없는 중심시가지외 가로를 ‘나무문화 창조구역’으로 설정함. 이외 기존 임야는 모리즈쿠리 지역(공급 지역)으로 명명하여 산림자원과 신선한 공기와 물, 휴양 등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설정
- 마을만들기 부분은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 등 기존 역사마을 만들기 방침을 계승하고, 그 외 지역은 이런 부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으로 이해하면 됨
- 나무 문화 추진 중점 지역은 도심축과 오와리초 지역을 중점 구역으로 설정함

木の文化都市推進計画について

21

1.概要

歴史・自然・文化と調和した金沢ならではの木の文化都市の実現を目指して、条例に基づき策定。

【計画期間】

令和5(2023)年度から令和14(2032)年度までの10年間

※社会情勢の変化に応じ、見直しを行いながら長期にわたり取組を進める。

2.エリア別のまちづくり方針

【エリア設定の考え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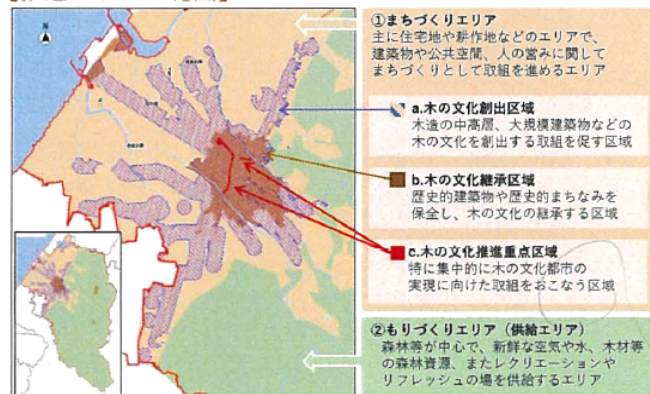
基本方針に基づき、施策を進める推進エリアを定める。

推進エリアは金沢市全域とし、大きく

- ①まちづくりエリアと
 - ②もりづくりエリア
- の二つに区分する。

そのうち①まちづくりエリアについて、施策に応じた3つの区域を設定する。

【推進エリアの範囲】



【나무의 문화도시 구역별 마을만들기 방침】

출처: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2024), 제공 자료

「나무의 문화도시·가나자와」 정책 관련 사업 등

- 정책사업 중에 가상 설계 시뮬레이션이 있음. 이를 통해, 목재를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비용을 비교하였음. 콘크리트나 벽돌에 비해 목재가 저렴하나, 주요 시책 대상인 4층 목조건물의 경우 목조가 약 10%가량 비용이 비쌘. 향후 기술개발에 따라 면적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

2) 民間施設などでの木の利用を促進する



「4階建て事務所・店舗建築イメージパース」(令和4年度仮想設計事業成果)

[4층 목조 오피스 건축물 가상설계사업 성과(2022년 사업)]

출처: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2024), 제공 자료

- 나무 문화 도시의 사업 방향은 마을에 나무를 사람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 목조건물에 관한 건축과 공법, 그리고 나무를 내외장재로 쓰는 것, 공예품 등 생활용품에 목재로 쓰는 것 등에 있음
- 2020년부터 추진된 나무의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개념을 담아, 2022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
- 주요 시책
 - 1) 나무의 문화도시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 CG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
 - 2)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로고 제작

- 3) 나무의 문화도시를 확산하고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 4) 나무와 숲을 체험하기 위한 목공 수업
- 5) 나무를 생업으로 하기 위해 가나자와 임업대학에서 연수생을 뽑아서 교육
- 6) 나무를 활용한 제품, 공예 기술을 통한 사업 지원(사례로 나무로 만든 자전거가 있음)
- 7) 나무 문화계승을 위해 건조물과 공간에 목재를 활용하는 사업(민간부문 3층이상 건축물에 보조금 지원, 실시설계비에 100만엔 상액으로 2/3보조, 시공비에 천만엔 상액으로 4/5를 보조)
- 8) 가나자와시 시설에 나무를 활용하는 사업(시청, 도서관 등)
- 9) 공원, 가로 시설물에 나무를 사용하는 사업(버스정류장 등)
- 10) 학생 공모전 등 이벤트 개최

新築・改修を検討中の皆様へ

まちなかでの建築物の木質化を支援します!!

金沢市では、まちなみや生活に「木」を取り入れ、歴史と調和した金沢ならではの魅力ある都市の実現のために木の文化都市の継承と創出に向けた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
対象区域で実施する建築物の木質化にかかる工事に対して補助金を交付しています。

①木の文化都市創出モデル事業補助金

■対象区域 尾張町モデル区域内
尾張町1丁目～尾張町4丁目の一帯、
国道159号(博労町交差点から橋場交差点までの区間)に面する敷地

■補助対象建築物 地上3階建て以上の建物
都市計画道路の事業予定区域における工事を併進させるもの

■補助対象事業
1.実施設計 (補助率3分の2 限度額 100万円)
木質化の工事を伴う実施設計に係る費用

2.木質化の工事 (補助率5分の4 限度額1,000万円)
建築物の新築、増築、改修、修繕及び模様替えに伴う工事のうち、国道159号から通称見えてくる部分の木質化の工事に係る費用、この工事と併せて行う構造の木質化の工事に係る費用

■注意事項
・利用には「木の文化都市」創出モデル事業選考会での選考が必要となります。
・対象建築物の用途は問いません。
・金沢市が保証金及び活用に関する条約に同意する金沢市を締結します。

②都心軸沿線の文化都市見える化事業補助金

■対象区域 都心軸沿線区域(金沢駅～犀川大橋)
3～2・1金沢駅通り線、
国道159号(武蔵交差点から犀川大橋北詰交差点までの区間)に面する敷地

■補助対象建築物 地上3階建て以上の建物

■補助対象事業
木質化の工事 (補助率2分の1 限度額500万円)
建築物の新築、増築、改修、修繕及び模様替えに伴う工事のうち、都心軸沿線区域から通称見えてくる部分の木質化の工事に係る費用、この工事と併せて行う構造の木質化の工事に係る費用


■注意事項
・対象建築物の用途は問いません。

詳しい区域は裏面へ

制度の利用には事前協議が必要です。お早め下記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金沢市 都市整備局 都市計画課
TEL: 076-220-2353
FAX: 076-222-5119
MAIL: tokai@city.kanazawa.ln.jp

金沢市では木の文化都市の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木の文化都市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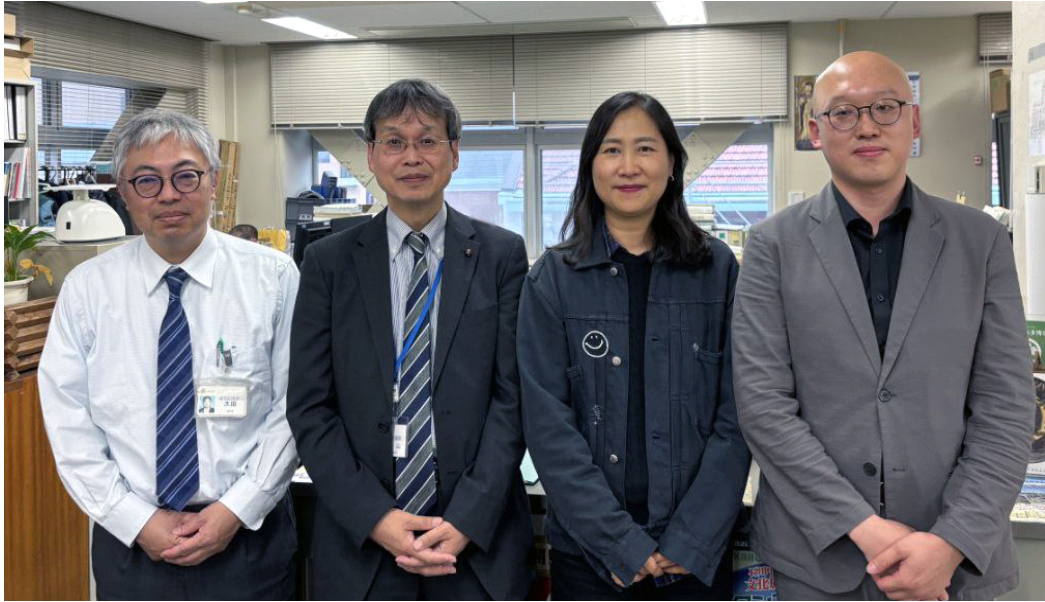

[가나자와시 나무의 문화 도시 창출 모델 사업 보조금 및 연선 수목 문화도시 가시화 사업 보조금 지원 안내]
출처: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2002), まちなかでの建築物の木質化を支援します, 안내 브로슈어

기타

-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계획에도 본 사업은 포함되어 있음. 나무의 도시사업에도 국토교통성 예산을 활용
-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의 제2차 계획에 나무의 문화도시 사업이 반

영됨.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성과 사전 협의를 진행

- 산림재생과에서 진행한 ‘나무의 집 만들기 장려금 제도’와는 구분되는 정책임(보조금 지원 목적 자체가 다른 것). 산림재생과 사업은 3층 이하 건축물에 해당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 방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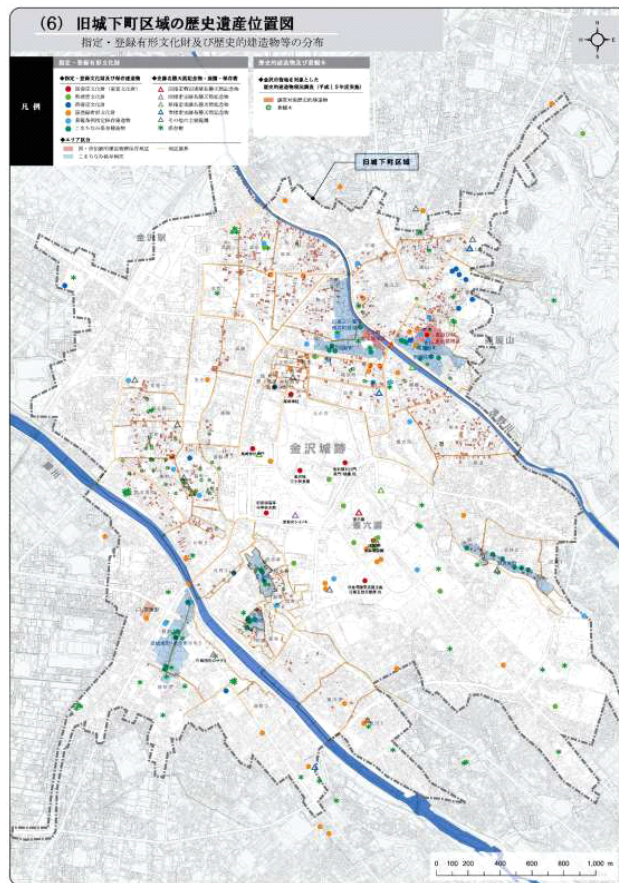
(4) 가나자와시 문화재보호과 정책담당자 면담

- (일시) 2024.4.26.(금). 14:00-16:00
- (장소) 가나자와시청 문화스포츠국 회의실
- (참석자)
 - 원외 : 가나자와시 문화재보호과 카게야마카즈야 과장보좌, 이타쿠라슈헤이 주사, 니시테츠건설 맹주찬(통역)
 - 원내 : 심경미 연구위원, 김종범 연구원
- (주요 안건)
 - 「일본 역사문화 기본구상 - 가나자와(가나자와역사유산보존활용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과 사업추진(지원사업) 현황
 - 「일본 역사문화 기본구상 - 가나자와」와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과의 관계, 정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 가나자와시 매장문화재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과제와 한계점

■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과 일본 역사문화 기본구상(現 문화재보존활용지역계획)

- ‘역사문화 기본구상’은 지자체가 문화재보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으로 문화재를 살린 지역 만들기 기여를 목적으로 함. 지역에 존재하는 지정·미지정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구상임
- 문화청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를 잘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제도가 역사문화 기본구상으로 이해하면 됨. 이와 함께 연동된 것이 지정문화재 주변과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건조환경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 수립임
- 두 계획은 상호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은 1차 계획 시,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준비하였음. 당시 5개 도시와 시범사업을 구상하여 진행
- 교토와 가나자와가 「역사마을만들기법」이 잘 진행되는 대표 도시. 그러나 도시의 형성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과 사업의 방향이 다를 수 있음
- 실질적으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에서 문화청의 역할은 작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청 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와 함께 예산을 활용하는 구조
- 2009년 일본 역사문화 기본구상의 일환으로 가나자와도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가나자와역사유산보존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 이를 토대로 2021년 '문화재보존 활용지역계획'으로 기존 조사와 계획을 갱신함
- 이 기초조사에는 문화청과 지자체의 예산 매칭비율이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국비 예산 한도 내에서 100%까지도 받을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사비용의 40%정도를 받음



[가나자와시 역사유산 보존활용 마스터플랜 (역사문화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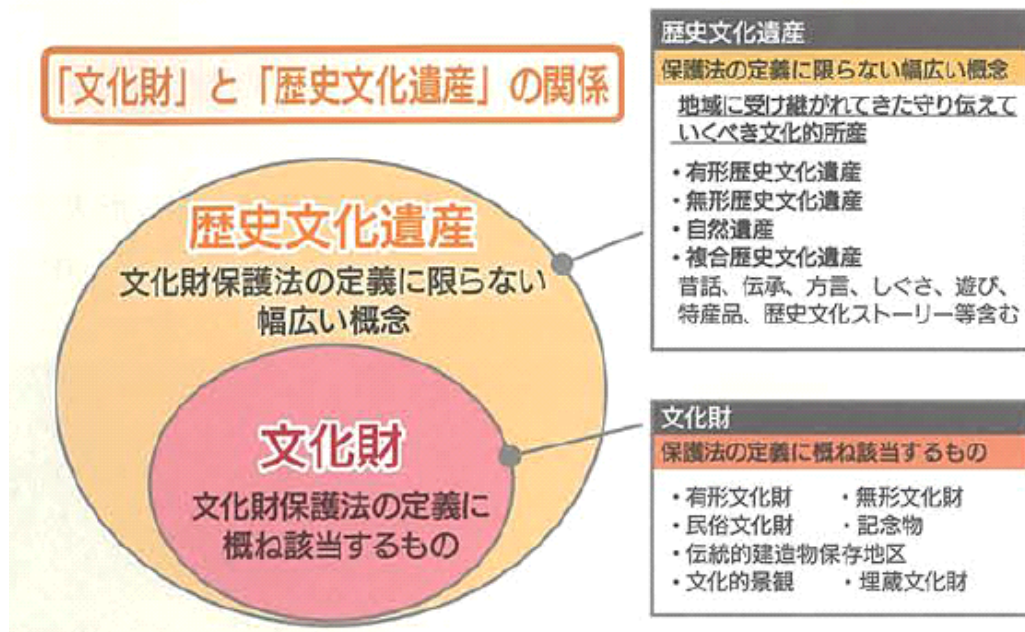
출처: 가나자와시(2017).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계획, p.81

가나자와의 역사문화 기본구상의 개요

- 〈가나자와시 역사문화 기본구상〉은 지역의 개성을 나타내는 도시적 측면과 역사 유산을 파악하여, 역사적 변천과 독자성·관련성에 근거해 가치를 밝히고 그 보존·활용을 위한 방침과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립
- 역사 유산의 이야기 설정 및 다각적 이해, 지역에 뿌리를 둔 역사 유산의 보존·활용에 기반하여 “가나자와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임
- 계획의 주용 방향은 ‘성시의 도시 구조, 용수군과 정원군, 전통 문화, 전통 공예, 전통 예능 보존·활용을 위한 구상’임

가나자와시 문화재보존활용지역계획(2021)의 주요 방향

- 기존의 역사문화 기본구상을 업데이트한 것이 문화재보존활용지역계획으로, 2018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된 계획
-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 활동을 담은 중기 액션플랜임. 문화재 활용에도 주안점을 두어 ‘가나자와의 특징을 살린 지역 진흥’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필요한 증장기적 마스터플랜과 단기에 시행할 구체화된 실시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계획. 계획의 목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임
- 계획에서 ‘문화재’와 ‘역사문화유산’의 관계를 설명.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상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통건조물보존지구도 포함. 이를 포괄하는 개념이 ‘역사문화유산’으로 법률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개념의 유산을 의미, 유형문화유산·전승·사투리·특산품·역사문화스토리 등도 여기에 포함



[가나자와시 문화재보존활용지역계획 상 문화재와 역사문화유산의 관계도]

출처: 가나자와시 문화재보호과(2024), 제공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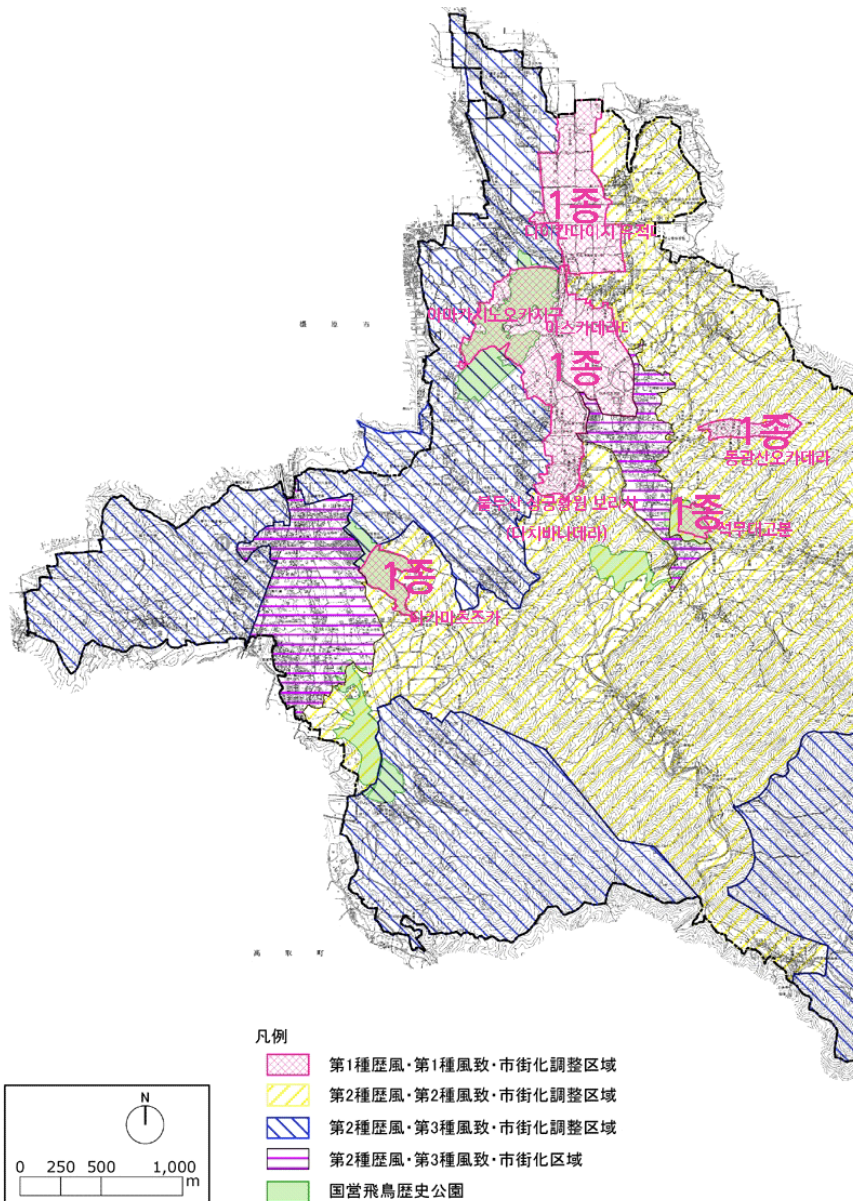
- 문화재가 밀집한 군락에 역사문화유산이 집적되어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문화재보존활용구역’으로 설정. 이를 통해 매력적 공간 창출을 기대
- 가나자와에는 5개의 문화재보존활용구역을 설정
 - 1) 옛 성시의 구역 : 다양한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노력 전개 가능
 - 2) 긴세키·오노·아와사키 구역 : 일본유산 기타마에후네기항지와 취락, 미나토초 특유의 문화

- 3) 구 호쿠니 가도 모리모토 화원구역 : 가도와 가에쓰 국경의 성터군 등 중세 이래의 경관과 문화
 - 4) 후타마타·타지마 구역 : 일본 전통 종이 기술과 전통 예능 등 마을의 역사문화가 남은 지역
 - 5) 유와쿠 온천 마을 구역 : 가나자와 유와쿠 에도촌에 집적된 풍부한 지역자원
- 본 계획에서는 시민, 행정, 교육 및 연구기관, 기업이 각 역할을 완수하면서 역사문화의 보존과 정비, 인재육성과 교육, 지역 연계, 정보 확산(발신)에 관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개별방침을 설정
- 1) 조사연구의 충실(비지정 유산 발굴조사, DB구축, 매장문화재 조사 지속, 역사도시 연구 추진)
 - 2) 문화재 지정 절차 추진과 적절한 보존관리에 이바지하는 사업 추진
 - 3) 진실성에 기반한 보존 및 수복 기술 적용
 - 4) 보존정비 및 활용 사업 실시(체험활동, 안내 개설, 시설 정비, 역사문화유산 활용 마을 조성, 디자인 퀄리티 향상)
 - 5) 주변 환경의 일체되는 보존과 정비
 - 6) 전문적 인재 육성 지원,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향토 사랑하기 사업 추진
 - 7) 활동 지원 및 연계 체제의 정비(지역협동으로 문화재 보존활동 실현)
 - 8) 관련 정보의 발신(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



[가나자와시 문화재보호과 방문 사진]

- 아스카시대 건물지는 약 7세기경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구가 남아있음. 일원에 역사적 풍토의 유지 향상을 목표로 일부에서 무전주화(無電柱化) 정비가 진행
- 국토교통성에서는 아스카의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총 5개 지구(다카마츠즈카 주변 지구, 아마카시노오카 지구, 이시부타이 지구, 이와이도 지구, 기토라 고분 주변 지구)로 구성된 국영 아스카 역사공원(国営飛鳥歴史公園)을 정비. 그 중 하나가 다카마츠즈카 고분 및 벽화관을 포함한 구역에 해당



[역사풍토보존지구 및 국영아스카공원 도시계획도]

■= 제1종 역사풍토보존지구, ■=국영아스카공원, 그 외 제2종 역사풍토보존지구

출처: 아스카촌(2015), 아스카촌역사문화기본구상, p.20



[아마카시 언덕 서측 마을 가로 및 아스카데라 일원 주택]



[국영아스카공원 일원의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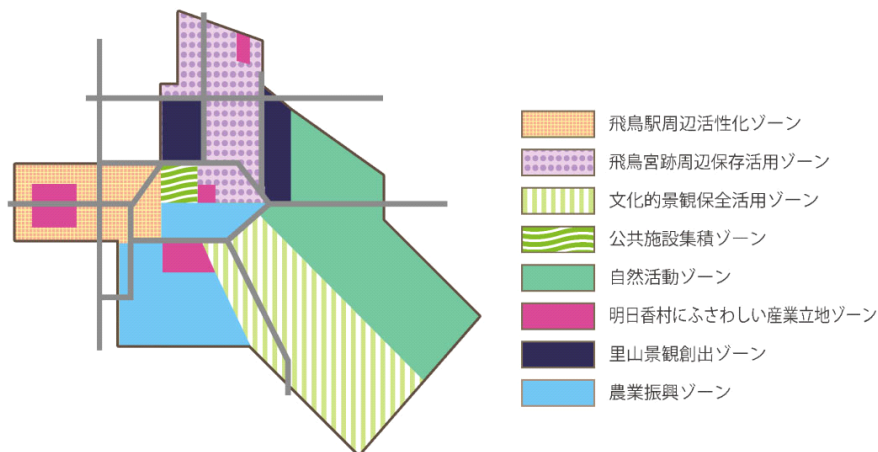
[다카마츠즈카 고분에서 바라 본 마을 풍경과 벽화관 입구]



[국영아스카공원 내 놀이터와 공원관(전시관)]

· 아스카촌은 ‘마을만들기’ 미래상 실현을 위해 토지이용 방향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 중

- ① 아스카역 주변 활성화 구역(다카마츠즈카 고분이 위치) : 국도변에는 마을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설 유치를 우선적으로 실시. 도시화 구역에서는 일반 주택 건설을 통한 정주화를 촉진 등 가치 있는 고분군을 활용한 광역연계를 통한 관광 및 농업체험 등 도농교류의 장으로 마을의 매력을 향상
- ② 아스카궁터 주변 보존 활용 구역 : 아스카궁터 등 유적을 적절히 보존 활용하고 아스카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인접한 마을에서는 역사를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역사탐방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카페와 음식점 등 활기를 불어넣고, 예술과 전통 예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
- ③ 문화적 경관보전 활용 구역 : 계단식 논과 마을의 경관을 지키고, 각 마을이 예로부터 이어온 전통 행사나 생활 속에서 아스카 강과 산림과의 관계 등의 활동을 보존. 도시민이 머물며 자연을 체험하고 마을 주민과 교류하는 활동을 장려
- ④ 공공시설 집적 구역 : 공민관, 건강복지센터, 진료소,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관공서 청사 등 공공시설들을 집적화하여 마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을 육성. 또한 마을 내 외부 사람들이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 ⑤ 자연활동 구역 : 산림 및 계단식 논 경관 보전 등 경관 형성을 추진하면서 수종전환 등 산림정비 및 간벌재의 자연체험의 장으로 활용을 전개
- ⑥ 아스카무라에 어울리는 산업입지 구역 : 아스카무라의 역사와 풍토에 공감하는 기업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여 아스카무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
- ⑦ 사토야마 경관 창출 구역 : 아스카궁터를 둘러싸고 있는 사토야마는 수종 전환을 통해 사계절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사토야마 경관을 창출
- ⑧ 농업 진흥 구역 : 산재한 당시 천황과 황족 등의 능묘와 역사적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채소, 과수, 쌀 등 생산 농업을 촉진하고, 관광농원 등 농업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 농업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개



[아스카촌 토지이용구상도]

출처: 아스카촌(2020), '제5차아스카촌종합계획 기본계획(종합전략)', 별책, pp.12~13

- '제5차 아스카무라 정비계획'에서는 방문객이 아스카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장된 유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전시하고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아스카촌 다카마츠즈카 고분은 지구 내 벽화관을 건립하여 고분벽화와 석실 복원 모형 등을 전시 중
- 벽화관 내부는 서로 다른 2가지 방식으로 복원(모사)한 벽화를 전시하고, 이에 사용된 각종 안료를 자료실에서 별도 전시. 현재 벽화관은 고도 아스카 보존재단(古都飛鳥保存財団)에서 운영 중



[다카마츠즈카 벽화관 내부]

- 아스카촌 오쿠야마(奥山)에 위치한 아스카 자료관은 아스카 내 발굴조사 기록과 도성의 구조, 다카마츠즈카 고분 출토품과 키토라고분 벽화 도판 복제품 전시



[나라문화재연구소 아스카 자료관 외부 및 도성 구조 모형]



[나라문화재연구소 아스카 자료관 내 벽화 도판 복제품 및 고분벽화 보존처리 과정 재현품]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 ASUCOME(아스카무) : 관광 및 상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창업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점포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아스카무라 종합계획' 중 [고대 역사의 무대에서 '교류가 활발하고 활기찬 마을'(농업·임업·상업·관광·고용) - 모여서 일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농·임·상·공)]의 일환으로 추진
- ASUCOME은 아스카촌 관광농림추진과(과거에는 산업만들기과)에서 관리. 2년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챌린지 기간을 부여하고, 행정지원으로 저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조언을 구할 수 있음. 마을 내 이벤트나 프로모션 출전 등 '도전자의 꿈' 실현을 지원. 현재는 유기농 카레 매장 등이 운영 중



[ASUCOME 외부 및 내부]

- Bran Sierra Villa Asuka(브랑시에라 빌라 아스카) : 1870년에 지어진 등록문화유산인 가옥을 개조하여 숙소로 활용. 빈집뱅크 제도를 운영하여, 빈집을 활용하는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실시
- Bran Sierra Villa Asuka는 케무다시, 오니가와라, 무시코 창, 코우시, 토부쿠로 등 아스카 지역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숙소로 리모델링 당시에 가능한 한 원형을 남기고 개수를 진행



[Bran Sierra Villa Asuka 전경]



[Bran Sierra Villa Asuka 내부]

- 모토지구(무전주화 구간)



[모토지구 일원]

- 빈집뱅크를 활용한 판매시설(오모이데당)



[오모이데당 전경]

- 오래된 민가를 소유자로부터 빌려 개보수 후 무상 임대(아스카 훈제 공방)



[아스카 훈제공방 전경 및 안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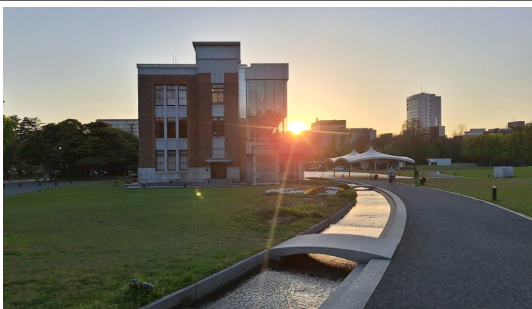
(2) 가나자와시

가나자와성 및 켄로쿠엔

- 가나자와성은 1583년 마에다 도시이에가 축조한 성. 「가나자와 성터(金沢城跡)」라는 명칭으로 국가 사적에 해당하여 건조물 부분은 국가(문화청)가 관리
- 이시카와현은 가나자와성 일원을 취득하여 공원으로 정비하였으며, 2001년에 성 개방된 이후 소실된 가나자와성 건축물 및 시설물을 복원하거나 휴게 공간 조성하는 등 사업 진행.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성 종합교부금 및 현 자체 재정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
- 가나자와성 남측에 위치한 시이노키 영빈관은 1923년 오키타 관방의 건축과장인 야바시켄요시가 설계한 복합청사임. 이시카와현은 도심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남측 일부를 보존하고 가나자와성 측을 유리 외관으로 증축하여 가나자와 성을 조망할 수 있는 갤러리와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을 유치. 리모델링 설계는 야마시타 설계사무소가 2010년에 진행



[가나자와성 복원 정비 구간 및 남측 공원 일원]



[가나자와성 남측 공원 일원 및 이시카와 현정 기념 시이노키 영빈관 내 가나자와성 조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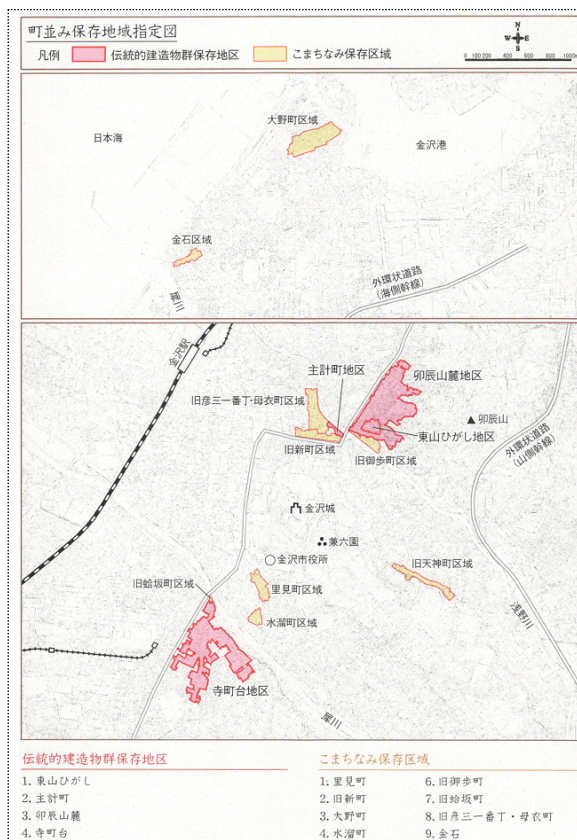
- 켄로쿠엔(兼六園)은 일본 명승 중 하나로 국가 특별명승임. 1676년 마에다 츠나키가 만든 정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장되어 현재에 이름
- 켄로쿠엔 내부에 별장 및 다실을 복원하고, 일일 대여 사업 및 차 음료 판매 등을 진행 중



[켄로쿠엔 내 차실 및 전경]

히가시차야

- 히가시차야는 전통 건조물이 모인 역사적 거리로, 2001년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一覽), 2005년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一覽)로 지정되어, 문화청의 관리를 받고 문화재 지역
-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에 대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 사업의 경비를 지원. 가나자와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에 포함하여 진행
- 현재는 찻집뿐만 아니라,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각종 공예품과 예술품을 판매하는 갤러리와 전시관도 다수 자리매김



[가나자와 역사적 지구와 가로 현황도]

■ =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

■ = 고마치나미 보존구역

출처: 가나자와시 역사도시추진과(2021),
고마치나미, p.3



[히가시차야 거리 및 휴게소]



[히가시차야에 위치한 가나자와 전통 공예품 판매점 및 이시카와현·토야마현·후쿠키현 생산 공예품 판매점]

■ 니시차야, 경관정비사업 대상지

- 니시차야마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대상으로 하는 고마치나미(こまちなみ) 보존구역에 해당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존 기준을 적용
- 고마치나미 보존구역은 대해 건축물 높이, 지붕 형태 및 재질, 외벽 색채와 재질, 식재, 문, 울타리, 외부 드러나는 설비기기, 옥외광고물, 차양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간판·안내판·안내지도 등의 디자인을 정비함
- 니시차야는 가나자와시를 가로지르는 사이 강 남측에 위치하여, 역사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 1820년 마을이 정식 구획되어 발전된 지역임
- 니시차야 일대는 경관정비사업 대상지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에서 사업을 포함하여 조경, 주차장, 시설물 설치 사업을 진행



[니시차야 거리 및 경관정비사업 대상지]

■ 나가마치

- 나가마치는 「가나자와시 경관계획」에 따른 전통환경보존구역 중 전통거리구역(伝統的な街区)에 해당하여 경관 보존
- 무사 집터의 토담이 이어져 있는 전통적 거리를 조성. 정원 및 용수로가 독특한 경관을 형성
- 가나자와 장인대학의 나가마치 연수 학원이 위치하여, 건축과 전통 조경의 실습이 이루어짐. 후원에는 연수생이 건축한 다실이 설치



[나가마치 일원 및 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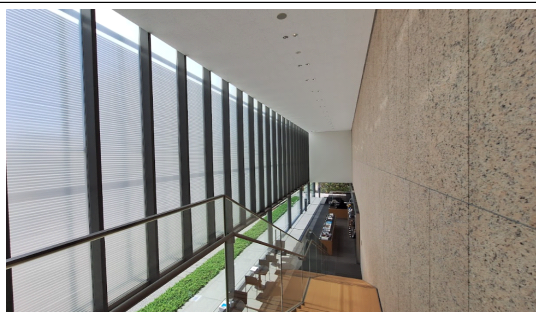
[나가마치에 위치한 가나자와 장인대학 및 연수생이 건축한 다실]

■ 박물관군

- 켄로쿠엔 일원으로 ‘국립 공예관’, ‘이시카와 현립 미술관’, ‘스즈키 다이세쓰관’, ‘21세기 뮤지엄’ 등 가나자와 주요 박물관 군집을 형성
- 21세기 뮤지엄이 포함된 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중심시가지 거리조성사업이 진행된 부지로, 박물관 주변의 가로 경관의 노후화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를 운영
- 가나자와시의 박물관은 다니구치 요시로·요시오 부자(父子)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한 건축물이 다수 있음. 다니구치 요시로는 일본 최초로 지자체에서 역사적 경관 보존을 위한 경관 조례를 제정을 추진한 인물로, 관련 내용은 가나자와 건축관에서 전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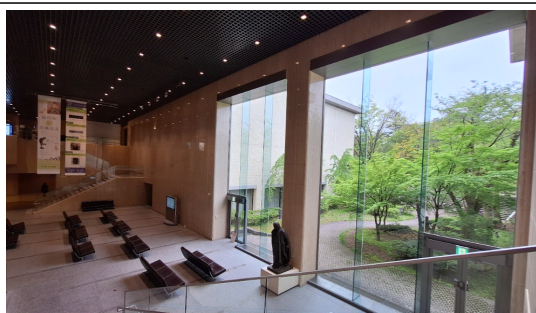
[중심시까지 거리조성사업 부지에 위치한 21세기 뮤지엄]



[가나자와 건축관 및 경관 조례와 관련된 전시 콘텐츠]



[스즈키 다이세쓰관 및 전시관에 연접한 쇼후카구 정원(시도지정문화재)]



[이시카와 현립 미술관 및 부속 보존처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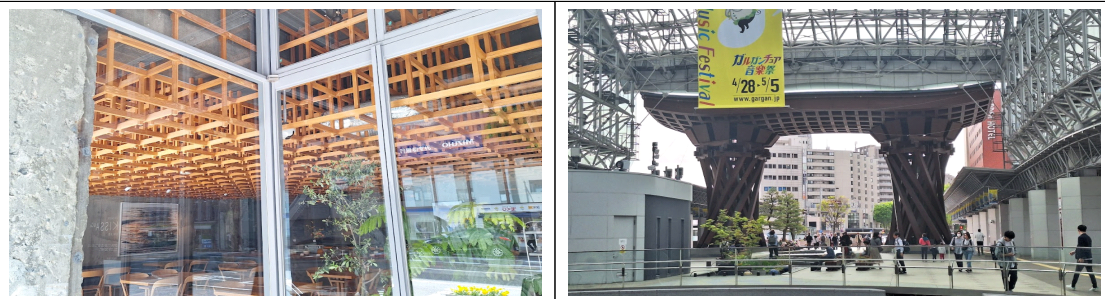
■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모니터링 대상 사업) 대상지

- 나무의 문화도시 추진 중점 지역(1)



[나무의 문화도시 추진 중점 지역(오와리초) 전경]

- 나무의 문화도시 추진 중점 지역(2)



[나무의 문화도시 추진 중점 지역(도심축) 일원]

- 테라마치군 전통건축물보존지구 일원 경관 관리



[테라마치군 일원 옥외광고물(이시카와현 광고경관상 수상) 및 쓰루라이 가도 가로경관 정비사업]

- 고마치나미 등 역사적 가로의 건조물 정비를 통한 경관 관리



[사토미초 및 나가마치 도시(전통)정원 조사사업 대상지(2021~2025)]

4. 출장 효과 및 시사점

- **일본 「고도보존법」·「아스카법」·「역사마을만들기법」을 적용받는 역사도시의 구체적·실질적 제도 운영현황 파악**
 - 문헌 및 웹자료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본 국토교통성·문화청 및 현 단위 광역, 시정촌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역사도시 보존·활용 관련 각종 제도, 예산 운용 현황과 정책사업 승인과 추진 등의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 **일본의 지정문화재 해당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방식에 대한 이해**
 - 「도시계획법」 및 시 자치 조례를 바탕으로 역사도시 경관과 현상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일본 역사도시 보존·활용의 두 가지 방식을 파악
 - 아스카촌의 경우, 기금(교부금)을 바탕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 반면 가나자와시의 경우, 국토교통성의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정책과 역사마을 만들기의 중장기 계획인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을 토대로 10년 단위 주민 지원 사업을 계획·실행·성과관리를 수행하는 차이점을 확인
-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재보존활용지역계획에서 면밀한 정기 기초조사 수행**
 - 일본 문화청은 일본 역사문화 기본구상에 이어 문화재보존활용지역계획 수립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의 지정·비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약 7년마다 갱신
 - 기초조사를 통해, 지역 자원과 도시 및 마을 내 활용 자원과 문화재를 적극 연계하는 장소만들기 사업을 구상
-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내 「고도육성법」의 구조상, 부여 등 고도 지역에서 안정적인 고도보존육성사업 시행을 위한 다층적 사업 추진 방식의 모색 필요**
 -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토지매입과 조사·정비 중심의 고도 관리계획에서 주민지원의 다양한 사업계획과 추진 방식,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구상이 필요

5. 구득 자료

- (아스카촌) 奈良県 明日香村(2021), 明日香去 ―「日本のこころのふるさと」を守り活かす法―, 明日香法制定40周年記念誌 ; 아스카무라 정비계획 관련 내부자료
- (가나자와시) 金沢市(2022), 金沢市文化財保存活用地域計画 ;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 관련 내부자료